조선대 대자협 "국민공익형 이사제 수용하라" 조선대 교수, 직원, 총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대학자치운영협의회는 14일 오전 조선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사회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공익형 이사제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나명주기자 mjna@

月 44만원 vs 5만원…사교육비 격차 심해졌다

〈월소득 700만원 가구〉 〈월소득 100만원 가구〉

교육부 초·중·고 조사…성적 10% 이내 학생 지출 최다

광주 1인당 月 23만원·전남 16만원…지난해 역대 최고

학생 수가 줄었음에도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고 소득 양극화로 인한 사교육비 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전남에서도 지난해 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증가했다. 올 들어 야간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보충수업)이 '선택제'로 바뀐 것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증가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전남 고교생 사교육비 증가, 수능 불안? '학종' 영향?=교육부가 14일 통계청과 공동으로 발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6000원으로 전년도(24만4000원)에 견줘 1만2000원(4.8%) 늘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데다, 증가폭 역시 가장 컸다. 1인당 사교육비는 2012년 23만6000원을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초·중학교와 달리 유일하게 증가했다.

광주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1만2000원으로 전년도(18만2000원)에 견줘 3만원(16.5%)이나 폭등했다. 광주 일반고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0만8000원(2015년)에서 지난해 24만7000원으로 3만9000원이나 늘어났다. 광주지역 사교육 참여율도 고등학교는 46.7%(2015년)에서 48.2%로 늘었다.

전남도 비슷하다. 지난해 고교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는 16만4000원. 2015년 12만5000원에 비해 3만9000원이나 늘었다. 일반고 학생 사교육비는 16만3000원(2015년)에서 21만2000원으로 급증했다.

■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만원, %)

구분	2015	2016	증감률
전체	24.4	25.6	4.8
100 미만	6.6	5.0	-23.6
100~200 미만	10.2	9.8	-4.0
200~300 미만	15.9	15.4	-3.2
300~400 미만	21.2	21.1	-0.9
400~500 미만	26.6	26.5	-0.7
500~600 미만	31.1	31.0	-0.4
600~700 미만	36.1	36.5	1.2
700 이상	42.0	44.3	5.6

전남지역 고교 사교육 참여율도 2015년 36.3%에서 지난해 41.8%로 증가했다.

고교 공교육 강화 대책 및 사교육 경감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교 공부만으로 부족하다'는 불안감이 학생·학부모들 사이에서 반영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하고 있는 대입 전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올해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을 희망 학생에게만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면, 광주지역 초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3000원(2015년)→22만6000원(2016년), 중학교 27만2000원(2015년)→25만1000원(2016년)으로 줄었다. 전남도 초등학생의 경우 16만3000원(2015년)→14만5000원(2016년), 중학생 21만2000원(2015년)→19만1000원(2016년)으로 감소했다.

다만, 광주지역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8000원으로 서울(35만2000원), 대구(26만5000원), 대전(25만7000원), 부산(25만6000원), 울산(23만9000원), 세종(23만7000원)등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만원, %)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5	2016	증감률			
전체	24.4	25.6	4.8	24.1	27.5	26.2
서울	33.8	35.2	4.4	29.9	370.	41.7
부산	23.4	25.6	9.6	23.7	29.2	25.5
대구	24.4	26.5	8.6	25.4	26.3	28.1
인천	21.3	23.2	8.7	23.5	23.6	22.3
광주	**22.8**	**22.8**	**0.1**	**22.6**	**25.1**	**21.2**
대전	25.4	25.7	0.9	25.3	29.0	23.4
울산	21.9	23.9	9.0	23.6	25.5	22.9
세종	19.6	23.7	20.5	24.2	24.1	21.7
경기	26.5	27.9	5.4	25.9	29.7	29.6
강원	17.1	18.4	7.7	18.6	21.6	15.5
충북	19.0	19.7	3.6	20.6	226	15.8
충남	18.0	17.7	-1.4	19.2	18.8	14.6
전북	18.6	19.4	4.3	19.5	21.4	17.5
전남	**16.5**	**16.2**	**-1.4**	**14.5**	**19.1**	**16.4**
경북	19.0	19.3	1.5	21.6	22.5	13.5
경남	20.4	20.9	2.6	20.4	22.2	20.6
제주	20.1	22.6	12.4	22.8	26.9	18.3

전남도 월평균 사교육비도 16만200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사교육 격차 커지고 예체능 늘어=과목별 사교육비를 분석한 결과, 1인당 교과 사교육비는 전국 평균 19만1000원으로 0.6% 증가한 데 비해 예체능 사교육비는 6만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9.5% 늘어 증가폭이 컸다.

교과별로는 영어(1.7%↓)와 수학(0.7%↓)에 쓴 돈은 줄고 국어(8.0%↑)와 사회·과학(8.5%↑), 논술(11.8%↑)에 들인 돈은 늘었다.

예체능 가운데서는 음악(20.8%↑)과 체육(19.3%↑), 취미교양(23.3%) 등의 사교육비가 큰 폭으로 늘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로 비교과 활동의 중요성이 커진 점, 자유학기제의 영향으로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기 위한 예체능 교육 수요가 늘어난 점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격차'는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교육비 지출은 월소득 600만원 이상 구간에서만 증가했을 뿐 600만원 미만에서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과 월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도 8배가 넘었다. 고소득층이 월 44만3000원을 사교육비로 쓸 때 저소득층은 5만원 지출에 그쳤다.

학생 성적 구간별로 사교육비를 보면 전체 상위 10% 이내의 학생이 월평균 32만9000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썼고, 성적 81~100%인 최하위 학생들은 돈도 가장 적게(17만5000원) 써 사교육이 성적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6:44 해짐 18:40 달뜸 21:11 달짐 08:14

완연한 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으나 대기가 건조해 화재예방에 유의하기 바란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맑음	0/13	보 성	맑음	-2/13
목 포	맑음	2/10	순 천	맑음	1/14
여 수	맑음	2/12	영 광	맑음	-2/9
나 주	맑음	-2/13	진 도	맑음	0/8
완 도	맑음	2/13	전 주	맑음	-1/12
구 례	맑음	-3/14	군 산	맑음	-1/10
강 진	맑음	-1/13	남 원	맑음	-4/13
해 남	맑음	-2/11	흑산도	맑음	4/9
장 성	맑음	-2/12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0.5~2.0	북서~북	0.5~1.0
	먼바다	북서~북	1.5~3.0	북서~북	0.5~1.5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0.5~2.0	북서~북	0.5~1.0
	먼바다(동)	북서~북	1.0~2.5	북서~북	0.5~1.5
	먼바다(서)	북서~북	2.0~3.0	북서~북	1.0~2.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9:04	03:53
	21:20	16:10
여수	04:35	16:45
	10:49	23:07

◇ **생활지수**

식중독	관심
자외선	보통
피부질환	낮음

◇ **주간 날씨**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1/12	0/16	2/17	3/18	3/18	6/13	6/15

주민에게 묻는다

남구, 1000만원 이상 관급공사 주민 감독

광주시 남구는 1000만원 이상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주민 감독을 받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감독관에는 기술자격증 소지자, 공사감독 경험자, 통장, 자치위원, 공직 퇴임자 등 주민 4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2019년 3월까지 남구가 발주한 공사 관련 주민 건의사항 전달, 불법·부당행위 감시 등을 한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3000만원 이상 20억원 이하 공사에 주민 참여 감독관이 활동하도록 명시했다.

남구는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주민 참여 감독관 활동 기준을 1000만원 이상 공사로 낮췄다.

일각에서는 이해타산에 얽힌 관련 업계 종사자와 구청자치위원으로 구성된 주민 참여 감독관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북구 '구민상' 후보자 주민 검증 후 선발

광주시 북구는 '북구 구민상' 수상후보자를 주민의 검증을 거쳐 선발한다.

북구는 "북구 구민상 수상자 선정에 앞서 후보자 명단과 공적 내용을 공개해 주민들의 검증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북구는 오는 21일까지 후보자에 대한 공적 요약서, 성명, 나이 등을 북구 홈페이지(www.bukgu.gwangju.kr)에 사전공개해 후보자별 공적 내용의 오류 및 착오, 수상자로서의 적격 여부 등에 대한 주민 공개검증을 실시한다.

올해 구민상 수상자로 추천된 후보자는 지역경제 2명, 지역사회봉사 3명, 문화예술체육 3명, 효행 3명, 장한 장애인 2명 등 5개 부문 총 13명이다.

공개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의견서를 작성, 북구청 문화관광과(062-410-6618)로 제출하면 된다.

구민상 수상자는 주민 의견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말에 선정하고, 시상식은 5월에 개최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구민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주민 공개검증을 통해 더욱 투명하게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숯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 650(W) × 1250(H)
• BN 1000 : 940(L) × 650(W) × 1250(H)

BN 테크
본사/영업본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04-1 공구상가 C 32동 401호 홈페이지 : bnytech.co.kr
Tel. 02-2029-8188/9 Fax. 02-2029-6404 E-mail : bntech1122@naver.com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062-953-2995 Fax.062-953-2998

참숯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테이크아웃(포장판매) / 창업
현재 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저렴한 장비 구입하여
떡갈비/통닭 메뉴 추가/포장판매로
부가 이윤이 발생됩니다.

제품의 특징
▶ 육즙이 살아있어 육질이 부드럽다.
▶ 여러 잡내가 없이 깔끔한 맛이다.
▶ 뛰어난 맛과 육질(부드러운) 포장판매 가능하다.
▶ 최고의 숯향(불맛)이 살아있다.
▶ 냉장보관 3일, 재고사용할 수 있다.
▶ 장비 이동이 용이하다.
▶ 전기, 가스가 필요없다.

장기 카드할부로 구입비용 부담 줄이세요!!
적용분야 ▶ 가정집(남녀노소) ▶ 낚시터, 야유회 ▶ 팬션/콘도 ▶ 캠핑시